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음 4월 5일) 제 15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정세균, 국회의장 적임자 '무게중심'

〈더민주, 서울 종로〉

6선으로 현 원내 1당 최다선

7선 이해찬, 복당 아직 안돼  
가능성은 희박 시각 팽배

국민의당과 조율해야하나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66)이 제 20대 국회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주요 이유이며 정치 1번지에서 승리한 6선 의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은 관례대로라면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나머지 당이 부의장 직을 가져 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7선인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아직 안된 상태인지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이 의원은 친노(親盧) 좌장으로 분류되고 있고 색깔 빼기에 주력하는 더불어민주당 현 추세에서는 힘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 6선인 문화상 의원 이룸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화상 의원의 경우 컷오프에서 살아 돌아온 케이스로 현실감이 떨어진다.

결국, 호남 창구 역할이 기대되며 전북 민심 견안기에 부담감이 없는 정세



“원불교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불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0일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해 한은숙 교정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균 의원이 적임일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제3당으로 등극한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조율을 거쳐야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부산 방문 기자회견에서 “총선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발언, 원내 1당이 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의 국회의장 가능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출신 상임위원장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요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누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도내 정가에서는 19대 국회 법사위 간사인 이훈석 의원(익산갑)이 거론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원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차지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대

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이다. 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단 포함 가능성이 제기 됐다. 정 의원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합리적 인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원내 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맡으면 법사위는 여당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이날 30일부터 시작된다. /신광명 기자

### 변호사개업인사

광주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 전북 남원 출생
-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군산지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 제주도, 전북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장

### 변호사 방극성 올림

- 업무개시: 2016년 5월 9일(월)
- 업무장소: 전주시 덕진구 시흥로 24 대동빌딩 203호(전주법원 앞)
- 대표전화: 063-276-2500
- 팩스: 063-276-2501
- 개업시간: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 ‘폭망한’ 도민체전 뒷수습에 ‘골머리’

도체육회, 인사위원회서 징계수위 논의... ‘뒷북 행정’ 비판 계속될 듯

도민체전 폐막 하루 만에 종합 순위가 바뀌는 웃지 못할 촌극을 선보이며 전국적으로 비웃음을 산 전북도체육회가 사후 처리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일 폐막한 2016 전북도민체전은 경기 중 폭력사태, 전산오류로 인한 종합순위 변경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운영미숙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평가로 막을 내린 바 있다.

주최 측인 전북체육회는 지난 3일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역량증명을 위한 중요한 무대였던 도민체전을 역대 최악의 대회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이다.

비난의 중심이 된 전북체육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산오류로 인한 종합순위 변경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임원과 실무자들을 회부시켜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회2일차 축구 준결승 경기에서 심판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심판의 개인 물품 등을 훼손한 전주시 축구팀 임원들과 선수들은 사건경위서를 받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영구제명 조치 등 처벌조치를 취할 계

획을 전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간 고치기 식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 ▶ 매일 INDEX

4면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격돌

社告

###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

폼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역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폼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폼바 명인전을 열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 전주 풍남문관광 특설무대
- 주최 :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 처리 ‘무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상임위 상정 자체 반대’ 새누리 전원 불참으로 인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돼 ‘반쪽 회의’에 그쳤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0여건의 법안을 상정만 한 채 산회했다. 11일부터 이들 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보이콧’하고 있어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을 강력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7월에 인양할 계획인데 특조위 임기는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농해수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실효성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여당이 계속 반대해 특조위 임기가 끝나고, 선체가 인양되

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조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선체를 인양하는 희박한 상황이 오면 농해수위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비정상 사태를 막아보려고 했다”며 “농해수위가 단 한번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시간이 없는데 세월호란 걸리던 파행을 면치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규성 더민주 의원은 “민생을 내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는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수많은 일이 산적한 민생 위원회의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상임위 회의 직전까지도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상호간 의견을 좁혀가며 산적한 소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율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강행한 것은 오만함의 극치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주 기자

전국 폼바 명인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 시민이 행복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GIMJE 김제시